

자력갱생을 변명의 보검으로 들머지고

7개월만에 일떠선 대규모의 주택지구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공화국의 눈부신 전변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건설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몇해전 공화국에서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들 새차게 일으며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공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워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국가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속에 건설분야에서 이룩된 하나 하나의 성과들은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다그쳐 더 높이 비약해가려는 공화국의 단란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흔히 건설을 두고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문명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문구나 화려한 시가보다도 새롭게 일떠서는 건축물들과 그 하여 변모되는 새라세로

운 모습들을 보며 생활과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공화국에서는 아무리 방대하고 어려운 건설대상도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나게 해 제기는 비상히 빠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로 말하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주제 108(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까지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장에 나오시어 건설정형을 료해하시며 몸소 이름까지 지어주신 주택지구이다.

흙먼지만 날리는 이곳에 착공의 첫삽을 박던 2014년 3월 여기에 옹근 하나의 주택지구가 몇달동안에 일떠선다는데 대해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

부지면적만 해도 20여만㎡에 달하고 살림집만 해도 24개 호

동 10여동의 공공건물들, 여러개의 공원과 놀이터들, 여러개의 상부구조물건설량만 놓고보아도 방대하기 그지없었다.

여기에다 넓디넓은 주택지구의 땅속에 그물처럼 뻗어 내릴 수십km에 달하는 오수망과 우수망, 전기망과 체신망구조물들과 같은 복잡한 하부구조물건설까지 념두에 두었다면 기성판례로는 도저히 엄두도 내기 힘든 공사였다.

하지만 무슨 일에서나 불가능이라는 것을 모르는 건설자들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무조건 해야 한다. 조선속도로 내달리자!

오직 이 하나의 정신으로 건설자들 모두가 그야말로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렸다.

한명이 두몸, 세물씩 일감을 걸머지고 교대가 따로없이 일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열풍

이 용양처럼 새차게 끓어올랐다.

그러하여 착공식이 진행될 지 불과 4일만에 한개 호동의 살림집구조공기르치기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시공단위들 사이에 집단적 경쟁열풍이 불었다.

대형정밀회틀시공방법, 계단단벽시공방법과 같은 대담하고도 혁신적인 공법들이 창안되어 단번에 한개 층씩 살림집골조가 일떠서는 비상한 속도가 창조되었으며 공사를 시작하던 3개월만에 주택지구의 모든 건물들의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이 끝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부망공사와 건물기초공사물 동시에 진행되는 대담한 립체전이 벌어지고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방대한 하부망공사가 계속되었다.

공사장전역을 휩쓰는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속에 하루가 다르게, 아니 한시가 다름치 않게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서서히 드러냈다.

은정과학자지구의 이 천지개벽은 이 땅위에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과 구상을 받들어 부단치는 모든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강한 정신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자기들이 더 많은 땀을 흘릴수록, 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조국은 그만큼 더 젊어지고 전진한다는 이런 애국의 열의와 강한 정신력이 있었기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옹근 하나의 주택지구를 7개월 동안에 훌륭히 일떠세울 수 있었던것이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완공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단 결심하시면 무조건 제 기일에, 단숨에 해제기는 공화국의 새로운 진군속도, 조선속도의 위력이 보다 뚜렷이 과시되었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조선에서의 속도창조 열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는 대개 단으로 변혁이 일어나는 대고조속도,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로 나아가는 비약의 속도,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것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영웅적인민들의 속도가 조선속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시대의 상징인 조선속도는 이제 백색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자랑찬 승리의 한페이지를 새겨 놓을것이다.》

절세위인을 진두에 모시고 승리의 레일을 향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해가는 그 길에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펼쳐질 사회주의강국의 환란한 레일이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흥범 식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공화국에서 인민의 생명안전이 굳건히 담보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칙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문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결정되었다.

이번 회의는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소한 자만도, 한치의 양보도 모르는 공화국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투철한 립장을 다시

인민을 위한 조치

공화국에 있어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실행하여야 할 최우선무,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정면돌파전을 철저히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로 일관시켜나가고있다.

인류가 악성전염병사태로 큰 고통을 당하고있는 속에서도 공화국에서는 인민적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칙국회의가 진행되고 평양시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중요문제가 토의결정되었다.

인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증대한 결단도 서슴없이 내리고 인민의 행복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공화국이 오늘도 일관시켜나가고있다.

이러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공화국이 오늘도 일관시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불과 7개월만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또 하나의 최첨단 건설공로로 태어나게 되었다.

수개월전에만 해도 번번한 자리에 새 건물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건물들이 막 들어찬 하나의 주택지구가 번듯하게 자리잡았으니 이 놀라운 천지개벽 앞에서 누구라도 이 탄성을 터치었다.

이 잘되고 아무런 화학적 변화도 주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세척 효과가 좋은 계면활성제에 기본안정제, 피부보호제, 방부제, 향료, 색감 등 보조약제들을 섞어 만든 물 불비누도 그 수요가 높다.

이 잘되고 아무런 화학적 변화도 주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제품들은 평양은 물론 지방들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탈색방지효과를 가진 여러가지 재료들과 생물분해효소를 첨가한 옷물비누제품들은 다른 비누를 사용하 때보다 피부와 섬유의 손상이 없고 세척력 또한 비할바없이 높아 사용자들속에서 세탁



—활발히 벌어지는 재자원화사업—

공화국에서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던 폐기물과 폐설물, 각종 생활오물들을 가공처리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있다.

황해북도에서는 유류자재를 기본 원료로 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황해북도일군들은 생활필수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우에서 보장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구매체계를 잘 활용하여 유류자재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일군들이 인민반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나가 해설회전사업을 활발히 벌여 그 어디서나 유류자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구매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자강도의 일군들도 유류자재를 리용해야 할 공장들에 나가 구매가격을 알맞게 정하기 위한 토의사업을 진지하게 벌리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몇개 공장을 시범단위로 정하고 경험을 창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다.

평양시에서 올해에 들어와 파지와 파비닐, 파수지병을 비롯한 많은 유류자재를 수집하여 여러 단위에 보내주었다.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자원화회의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실의 받아 재처리공정을 운영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제품생산의 전문화

실폐를 거듭하면서 애써 만든 제품에 미세한 기포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저없이 않았다. 물성검토를 다시, 또다시 반복하면서 질적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두모양의 사출신발을 완성하게 되었으나 이들은 쉽게 만세를 부르지는 않았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새로 개발한 사출신발을 들고 공장주변에 있는 어느 한 고급중학교 학생들과 함흥중학원 원아들을 찾아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의 평도 좋았다. 가볍고 편리하며 특히는 구두모양이어서 더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녀학생들은 신발에 나비모양의 장식을 해달라고 했고 어떤 교원은 아이들의 교복색깔에 맞게 신발색깔도 자주색이면 좋겠다고 스텝없이 의견을 제기했다.

공장에서는 그후 신발의 장식과 색깔을 더욱 다양하게 하면서 품종을 늘였다.

누가 더 좋게, 더 쓸모있게 만들었는가.

누구나 이 물음앞에 땀뺀 대답하기 위해 폐기물과 폐설물을 리용한 제품생산에서 질적담보를 첫자리에 놓고 경험도 교환하고 교훈도 찾으면서 따라앞서고 따라배우기 위한 경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그러나 하면 실정에 맞게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최대한 증산절약해가고있는 단위들도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평성에서국가방공장의 종업원들은 한조각의 자투리도 허실될새라 작업현장에 절약함을 만들어놓고 리용하고있다.

절약함은 비록 크지 않아도 유류자재들을 효과적으로 재생리용하여 나라살림살이에 이바지하려는 그 마음은 참으로 소중한것이다.

은 나라의 일터마다에 이런 애국의 마음이 차고넘쳐 나라의 재부는 나날이 늘어나고 부강조국건설에 큰 보탬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황금 식

평양의 자랑인 경치아름다운 모란봉의 절승경개와 잘 어울리게 멋들어지게 역사안역의사부도 멋있지만 역사안은 화려한 궁전에 들어선듯 절로 감탄이 나왔다.

불빛관현하고 시원한 계단승강기호의 천정조명과 장식들도 특색이 있었지만 만경봉과 백두산산영고향집, 리명수폭포, 주체사상당, 천리마동상 등을 형성한 사진작품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후회없이 돌아보게 했다.

이어 우리는 계단승강기를

라고 아래로 내려갔다.

아치형의 무늬들로 화려하게 장식한 천정조명에서 눈길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조명장식, 천정장식, 건축장식, 벽면장식들로 하여 역사안은 말그대로 지하궁전을 방불케 했다.

의자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신문게시판에서 새 소식을 읽어가는 사람들, 액정TV를 보는 사람들...

역구내에서는 지하전동차들이 철새없이 오고갔지만 환호한 지하호의 여기저기에 눈

